

李濟馬의 醫學史觀에 대한 考察

金敬堯*

서론

東武 李濟馬(1837-1900年)는 1894년 그의 著書인 <東醫壽世保元>을 통하여 지금까지 내려온 中國 醫學과는 다른 새로운 醫學世界인 四象醫學을 創案하였다. 中國醫學은 約5000餘年の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으며, 人類의 歷史가 시작되면서 醫學도 必然的으로 成長 發展하여 經驗的인 知識의 蓄積과 各時代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와 더불어 有機的인 關係를 가지면서 發展해 왔다. 오랜 歷史와 傳統을 이어온 醫學의 變遷史를 記錄한 것이 醫學史이며, 醫學史는 認識하는 사람의 觀點에 따라서 다르게 解釋될 수 있으니 李¹⁾는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에서 “神農, 黃帝以後 秦漢以前的 病證藥理를 張仲景이 모아 <傷寒論>을 지어 醫道가 始興하였고, 張仲景以後 南北朝 隋唐醫가 繼承하여 宋에 이르러 朱肱이 病證藥理를 모아 <活人書>를 지어 醫道가 中興하였고, 宋元以後 明以前的 病證藥理를 李杲, 王好古, 朱震亨, 危亦林등이 이어오다가, 李梴, 龔信이 갖추어 얻고 許浚이 갖추어 傳하여 <東醫寶鑑>을 지어 醫道가 復興하였다.”하여 醫學 五千年史를 始興, 中興, 復興의 三段階로 分類하였으며, “醫家の 勤勞功業을 論한다면 張仲景, 朱肱, 許浚을 으뜸으로 삼고

李梴, 龔信을 그 다음으로 삼을 수 있다.”하였으니 이러한 李濟馬의 醫學史觀은 “本來 東洋醫學은 內經說을 基礎로 學理가 이루어졌고, 後漢時代에 와서는 張仲景이 傷寒論을 著述하므로 비로소 醫學體系가 確立된 것이다.”²⁾ 라는 一般的인 觀點에서 評價하는 中國醫學史와는 다른점이 있으니 著者는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을 根據로 하여 李¹⁾가 認識하는 醫學史觀에 대하여 考察해 보고자 한다.

본론 및 고찰

中國醫學의 由來는 지금부터 約 5000年前 神農氏 時代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니 淮南子 <修務說>에 의하면 처음 神農氏가 百姓들에게 百草의 藥效를 가르쳐 주었고, 하루에 70餘種의 毒性을 가려내어 藥을 發明했다고 하였으니, 劉勰의 <通鑑外遊說>에는 百姓들이 疾病을 앓아도 藥이 없어서 治療를 하지 못하므로 炎帝神農氏가 풀과 나무의 맛을 가려내어 百姓들의 疾病을 治療했다는 記錄이 있다. 이것이 醫藥이 생긴 始初에 관한 說이다.³⁾

李¹⁾는 醫源論에서 “書曰 若藥不暝眩 厥疾不瘳, 商高宗時 已有暝眩藥驗 而高宗至於稱歎 則醫藥經驗

* 圓光大學教 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其來已久於神農黃帝之時 其說可信於眞也 而本草素問 出於 神農神農黃帝之手 其說不可信於眞也, 何以言之 神農黃帝之時 文字應無 後世文字繞漉例法故也.”라고 하여 “醫藥이 생긴지 오래되어 殷나라 高宗時代에 이미 醫藥經驗이 있어서 神農, 黃帝때부터 전해왔다 함은 가히 믿을 수 있으나, 神農, 黃帝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은 믿을 수 없으니, 이는 神農, 黃帝時代에는 文字가 없었고 오랜 후에 自然스럽게 文字가 생겨 점차 發展해 왔기 때문이다.” 하였다.

約4700餘年前에 黃帝 軒轅氏가 臣下 岐伯등과 平素에 問答한 內容에 사람의 生命에 관한 養生論, 臟腑論, 經絡, 運氣論에 이르기까지 廣範圍하게 論議한 것이 <黃帝內經>이며 오늘날까지 中國醫學의 原典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神農, 黃帝는 約 5-6千年前 中國歷史上 神話時代의 人物이니 實際로 認定하기는 어렵고, 李¹⁾가 醫源論에서 指摘한대로 醫史學的 確實性은 秦, 漢時代에 와서 體系化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黃帝內經> <神農本草經>은 後漢에 이르러서 神農, 黃帝를 假託하여 著述한 것으로 推測된다. 紀元前 三千年이면 象形文字時代로 추정되며 殷墟가 발굴되고 甲骨文字가 나오으로써 紀元前1000年을 前後하여 文字가 생겼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³⁾ 以上으로 歷史的인 事實을 認識하는데 있어 東武의 實證的이고 科學的인 精神을 읽을 수 있다.

“哀周秦漢以來 扁鵲有名而張仲景具備得之 始爲成家著書 醫道始興, 張仲景以後 南北朝隋唐醫繼之 而至于宋 朱肱具備得之 著活人書 醫道中興, 朱肱以後 元醫李杲, 王好古, 朱震亨, 危亦林繼之 而至于明李梴, 龔信信具備得之 許浚具備傳之 醫道復興.”이라 하였으니 中國醫學이 發展史를 始興期, 中興期, 復興期の 三段階로 나누고 있다.

“扁鵲有名”이라 하여 <難經>이 著者로 알려진 扁鵲을 평가하지 않고 단지 있었다는 사실만을 記錄한 것이니, 難經은 예로부터 秦越人(扁鵲) 著로 되어

있으나, 過去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를 疑心하였다. 그 理由는 史記, 扁鵲列傳에 難經이 提示된 바 없고, 漢書, 藝文志에도 이 書가 記載되어 있지 않다. 특히 그 內容으로 볼 때, 陰陽五行 神秘化의 影響을 받은 것이 明顯하므로, 이것이 西漢以前의 著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難經은 問答의 形式으로 古醫經을 解釋한 理論書이다. 全書는 모두 81個 問題를 討論하였으므로 八十一難이라 稱하며 討論한 問題는 大部分이 內經에 提示된 것이다.⁴⁾

醫道始興을 張仲景이라 하였으니, 이는 醫學이 起源을 內經醫學이 아닌 傷寒醫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內經의 醫學理論이 비록 基本的으로 比較的 完全한 體系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많은 部分에서 充實한 實踐經驗이 缺乏되었고, 특히 藥物方劑의 運用方面에서의 經驗이 더욱 적었다. 이로 인하여 基礎理論과 臨床實踐 사이에 緊密한 連繫가 어려워 理論의 實踐 指導作用에 難點이 많았다.⁴⁾ 그 後 時代를 거치면서 六經辨證, 臟腑辨證, 衛氣營血辨證, 三焦辨證등으로 臨床實踐이 이루어져 東洋醫學의 理論과 臨床實際가 兼備되어, 張仲景이 內經의 熱性病을 專門分野로 다루어 六經에 의한 辨證論治를 確立하여 그 後 豐富한 臨床經驗, 疾病에 대한 認識의 進步, 理論上의 發展이 이루어졌으니,³⁾ 東武의 醫學은 처음부터 구체적인 證狀에 대한 實證醫學으로써 觀念論的인 問題보다는 體質의 特性에 따른 證候論的인 面에 더욱 關心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觀點이 醫道の 始興을 觀念論的인 內經醫學보다는 證候論的인 傷寒醫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張仲景以後 南北朝, 隋唐醫가 繼承하였고 宋에 이르러 朱肱이 골고루 갖추어<活人書>를 짓고 醫道가 中興하였다.” 하였으니, 中國醫學의 發達過程에서 볼 때, 兩晉 南北朝에서 唐 五代에 이르기까지 醫學이 內經의 理論的 基礎위에서 進一步하여 臨床經驗을 累積시킨 時期라고 본다면, 宋代의 醫學은 앞의 臨床經驗의 基礎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理論上의 探

究와 發展을 進行시킨 時期라고 할 수 있다. 傷寒論以後 約 700-800年이 經過하는 동안 臨床經驗이 累積되어 疾病의 發生과 發展過程에 대한 認識, 그리고 治療 및 處方用藥의 法則把握에 대해 모두 큰 進歩를 하였다. 이들은 옛 理論을 發展시키고 새로운 理論을 創造하여 臨床에 應用할 수 있도록 提供되었다. 宋代에 이르러서는 理學이 盛行, 自由스러운 思想的 擬古風潮, 醫學知識의 普及, 印刷術 및 製紙術의 發達등의 刺戟要素로 인해 理論의 研究가 開始되었다. 처음에는 臨床의 基礎로 傷寒論을 重視하였으나, 점차 傷寒論에 대한 새로운 研究가 일게 되었고, 많은 傷寒論에 관한 著作이 紛紛히 出現하게 되었다. 그 중 有名한 것은 『成無己』의 〈傷寒論注〉 〈傷寒明理論〉, 『龐安常』의 〈傷寒總病論〉, 『韓祗和』의 〈傷寒微旨〉, 『朱肱』의 〈南陽活人書〉, 『許叔微』의 〈傷寒發微論〉 〈傷寒百證歌〉 〈傷寒九十論〉, 『郭雍』의 〈傷寒補亡論〉, 『楊士瀛』의 〈傷寒類證活人總括〉등이다. 東武는 朱肱을 醫道의 中興이라 하였는데, 朱肱의 代表的 著作은 〈南陽活人書〉이며, 本書의 初名은 傷寒百問으로, 大觀元年(1107年)에 朱氏의 自序가 있다. 大觀 五年(1111年)에 張蕡이 序文을 쓰고, 〈南陽活人書〉라 改名하였다. 政和 8年(1118)에 朱氏는 또 修改하여 刊行하였는데 이것이 最後의 定本이다. 本書는 傷寒論의 整理와 闡釋에 있어서도 龐氏의 傷寒總病論에 비하여 平凡하면서도 妥當性이 있어 後世에 미친 影響도 크다.^{4,5)} 朱肱은 仲景을 깊이 研究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實際 臨床에 이르기까지 널리 應用하여 傷寒論의 後代 研究에 많은 貢獻을 하고 있으나, “六經은 手足三寒三陽經이며, 經脈을 모르고는 傷寒을 論할 수 없다.”⁶⁾ 傷寒病을 內經의 經絡과 聯關지어서 보고 있으니, 東武는 醫源論에서 “三陰三陽者 辨證之同異也 其理在於腹背表裏 而不必求其經絡之變也”라 하였으니, 病證에 있어서 體質에 따라 治療가 다르므로 經絡變動에 置重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經絡을 重視한 朱肱과는 醫學

的 觀點이 다르다. 그런데도 朱肱을 醫道의 中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傷寒醫學을 中心으로 해서 醫學史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朱肱以後 元醫 李杲, 王好古, 朱震亨, 危亦林이 繼承하였고 明代에 이르러 李杲, 龔信이 골고루 갖추었고, 許浚이 골고루 傳하여 醫道가 復興했다.” 하였다. 金, 元時代에는 이미 宋代의 朱熹(1130-1200年)에 의해서 朱子學이 集大成되어, 新儒學의 哲學理論과 醫學이 接合되는 時期로써 金元四大家가 배출되는 時期이며 劉完素(1120年-?) 李杲(1180-1251年), 張從政(1156-1228年), 朱震亨(1281-1358年) 등 四人이다.

劉完素는 六氣學說中에서 重要시하는 六氣致病의 影響을 받았고, 또 內經 至真要大論中에 있는 病機十九條의 理論에 根據하였으며, 더 나아가 六氣中에 있는 火와 熱이 가장 重要的 致病의 因素가 된다고 認識하였다. 또한 運氣學說中에 있는 氣化部分을 크게 發展시켜 六氣가 모두 化火할 수 있다고 主張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내건 結論으로 絶對多數의 疾病이 모두 火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겨, 治療에서 寒涼한 藥을 爲主로 하였으며, 後世에 그를 寒涼派라고 부른다.

張從政 역시 劉完素의 一派에 屬하지만, 그의 主張은 같지 않은 곳이 있다. 그도 疾病은 六氣가 邪氣로 되어 人體에 侵犯한 結果라고 認識하였지만 疾病의 治療에 있어 이러한 邪氣를 人體內에 驅逐하는 方法으로, 汗吐下 三法을 爲主로 해야 한다고 하였고, 특히 吐下의 두 法은 效果가 가장 迅速하다고 主張하였다. 이로 因해 後世에 攻法을 가장 잘 使用하였다고 하여, 이 一派의 主張을 攻下派라 일컬었다. 李杲는 劉完素 張從政 二人이 六氣의 外感作用을 強調한 데 反해, 그는 各種 疾病의 發生이 모두 內傷 卽 體內正氣의 損傷이 主要 因素가 된다고 認識하였다. 그는 또 內經 太陰陽明論篇의 論點을 根據로하고, 더욱 發展시켜 人體의 正氣는 脾胃의 元

氣가 주가 된다고 認識하였다. 따라서 “人以胃土爲本”, “百病皆由脾胃衰而生也”라고 主張하여, 各種疾病을 治療함에 있어 모두 脾胃之氣를 補하는 것을 爲主로 하였으므로, 後世에 그를 補土派라 稱하였다. 그와 張從政의 主張은 觀點에 있어 相反되어, 두사람의 論爭은 상당히 激烈하였다.

朱震亨은 앞의 사람들보다 時代가 좀 뒤떨어진다. 그는 劉完素와 間接的인 師承關係가 있었으므로, 劉完素의 主火論의 影響을 크게 받았다. 그러나 그의 火에 대한 觀點은 劉完素와 크게 다르다. 그는 主張하기를 人體內에는 相火가 있는데 이 相火는 聲色の 衝動에 의해 가장 쉽게 陰精이 耗泄되므로 人體內에는 陰常不足而陽常有餘하다고 하였고, 陰精의 不足은 各種疾病의 發生에 가장 重要한 因素가 된다고 認識하였다. 따라서 그는 治病에 補陰精而抑相火를 爲主로 해야한다고 하였으며, 後世에 그를 滋陰派라고 稱하였다.^{4.7)}

朱肱以後 元醫 李杲, 王好古, 朱震亨, 危亦林이 繼承하였으니, 이 중 李杲, 朱震亨은 金元四大家이며, 劉完素와 張從政이 빠진 것은 東醫壽世保元에 引用된 20餘種의 文獻을 살펴보면 劉完素, 張從政의 著書는 東醫壽世保元에서 전혀 引用된 곳이 없는 것으로 理解할 수 있고, 王好古와 危亦林은 引用文獻을 통하여 상당히 認識하고 있다.

또한 東武는 張仲景, 朱肱, 李杲, 龔信은 具備得之라하고, 유독 許浚만이 具備傳之라 하였으니, 이 또한 東武가 許浚의 東醫寶鑑에 대해서 아주 明瞭하게 認識하고 있는 것이다. 許浚은 尨대한 醫學書籍을 整理하고 우리 實定에 맞지 않는 本草나 處方 그리고 用量을 고쳐서 우리 實定이나 體質에 맞는 韓國의 醫藥을 만든다는 뜻에서 우리나라에서 生産되는 鄉藥을 鄉名, 產地, 採集日月, 修治등을 詳細히 記錄하여 누구나 쉽게 구하여 鄉藥을 쓰게 하였고,⁸⁾ 鄉藥의 使用을 勸獎하는 方向에서 編輯되었으며, 處方의 用量을 再構成하여 韓國人의 體質에 맞도록 實

用化하였다.⁹⁾ 그러나 그의 獨創的인 醫學思想은 發見하기 어려우니, 이러한 점을 明確하게 認識한 東武는 許浚을 具備得之보다는 한 段階 낮은 具備得之했다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

“蓋自神農, 黃帝以後 秦漢以前 病證藥理 張仲景傳之, 魏晉以後 隋唐以前 病證藥理 朱肱傳之, 宋元以後 明以前 病證藥理 李杲, 龔信, 許浚傳之, 若以醫家 勤勞功業論之 則當以張仲景, 朱肱, 許浚爲首 而李杲 龔信次之.”라 하였으니, 東武가 認識하는 醫學史가 內徑醫學보다는 傷寒醫學을 中心으로 보고 있어, 張仲景, 朱肱을 爲首로 놓은 것은 當然하나 具備得之하지 못하고 具備傳之한 許浚을 爲首로 한 것은 多少 意外라 할 수 있다. 宋等은 東醫寶鑑이 1610년에 完成되었고 東醫壽世保元이 1894년에 完成되어 朝鮮 時代에 280年間의 時差를 두고 [東醫]라는 이름의 두 醫書가 나온 것은 偶然한 일이 아니며, <古方 傷寒論>은 中國에서 出發해서 中國에서 完成을 보았고, <後世方的 證治醫學>은 中國에서 出發해서 中國에서 完成을 보았고, 四象醫學은 韓國에서 나왔기 때문에 中國의 醫道는 張仲景, 朱肱이 이어왔고, 韓國의 醫道의 脈은 許浚, 李濟馬가 이어가니, 이와같은 醫學史觀을 가지고 있는 東武는 누구보다도 許浚이 醫學思想을 잘 理解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四象醫學의 創案에 醫學的 方法論으로 採用했으며, 四象人의 病證藥理를 說明할 때 宋元明 여러 醫家들의 醫書를 引用하였는데 이들 20餘種의 醫書들이 大部分 東醫寶鑑에 引用된 86種의 醫書에 包含되어 있고, 또 東醫寶鑑以後에 發刊된 醫書는 한 卷도 없으니, 東武는 많은 醫學的 知識을 東醫寶鑑을 통하여 얻었을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東武는 누구보다도 許浚의 東醫寶鑑을 正確하게 認識하고 있는 것이다.

“李杲 龔信 次之”라 하였는데 李杲의 <醫學入門>은 朝鮮後期에 가장 많은 影響을 끼친 醫書이며, 龔信은 <古今醫鑑>의 著者이고(古今醫鑑은 龔信著라고 題書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은 그의 父가 始作하고 그가 이

어서 完成한 것이 아닌가 했다. 그러나 그의 自序에 의하면 實際는 龔廷賢이 著한 것이다.⁴⁾ 龔廷賢은 그의 子弟로서 〈萬病回春〉 〈壽世保元〉 〈濟世全書〉의 著者로, 東武는 引用文에서 龔信的 古今醫鑑과 龔廷賢의 萬病回春을 함께 引用하고 있으며, 東武는 太陰人의 肝受熱裏熱病證에 대한 病證藥理 및 經驗處方的 많은 部分을 龔信을 통하여 얻었다 할 수 있으니, 〈醫源論〉에서 “少陰人病證藥理 張仲景庶幾乎昭詳發明而宋元明諸醫 盡乎昭詳發明, 少陽人病證藥理 張仲景半乎昭詳發明 而宋元明諸醫 庶幾乎昭詳發明, 太陰人病證藥理 張仲景略得影子 而宋元明諸醫 太半乎昭詳發明, 太陽人病證藥理 朱震亨略得影子 而本草略有藥理”라 하였으니, 東醫壽世保元の 引用文獻 頻度數를 調査해 보면, 少陰人의 病證藥理는 137個의 引用文獻中 傷寒論 49個(35.8%), 宋元明諸醫33個(24.1%)로 張仲景과 宋元明諸醫모두 庶幾乎昭詳發明하였고, 少陽人의 病證藥理는 傷寒論14個(10.2%), 宋元明諸醫 18個(13.1%)로 宋元明諸醫로부터 引用한 文獻이 더 많으니 張仲景보다는 宋元明諸醫가 少陽人의 病證藥理에 대해서는 庶幾乎昭詳發明한 것이다. 그러나 太陰人의 病證藥理에서는 傷寒論 3個(2.2%), 宋元明諸醫 15個(10.9%)로 傷寒論에서도 그림자만 비추고 알지 못한 것을 宋元明諸醫는 太半乎昭詳發明하였으며, 唐宋明代의 醫家들이 著述한 中에서 經驗한 太

陰人病의 要方 9處方中 4個가 龔信의 處方이며, 특히 太陰人 肝受熱裏熱病의 肝燥熱證에 代表的 處方인 葛根解肌湯, 熱多寒少湯, 清肺瀉肝湯, 葛根承氣湯등이 龔信의 〈醫鑑書〉에 나오는 葛根解肌湯의 變方이니, 東武는 龔信이 비록 四象體質은 몰랐지만, 太陰人의 裏病證에서 나타나는 肝燥熱證에 대한 病의 證候와 여기에 使用할 수 있는 藥物, 處方을 正確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바로 이 점이 龔信을 李梴과 함께 醫學史의 한 面을 장식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東武의 四象體質說은 內經 五態人論의 太少陰陽人과는 다른 것이나 五態人論과 陰陽二十五人論의 先天體質에 대한 認識은 東武가 四象體質說을 着想하게 된 動機가 된 것으로 생각되며, 四象人의 病證藥理는 張仲景, 宋元明諸醫에 의해서 或은 完全하게 或은 影子만이 얻어졌는데, 이는 體質에 대한 認識이 없이 證候體系에 의한 變증으로 얻어진 것이며, 東武는 體質分析에 의해 이들 醫家들의 研究內容을 再編하고 이어서 自身의 研究觀察과 經驗을 土臺로 東醫壽世保元을 著述하였다. 이로써 東武는 中國醫學의 5000年史를 自身의 醫學的 觀點에 따라, 內經醫學보다는 傷寒醫學中心으로 하여 醫道의 始興期, 中興期, 復興期의 三段階로 나누고, 醫家의 勤勞 功業을 再編成한 것이다.

〈圖表 1〉 東醫壽世保元 病證論에서의 引用文獻別 頻度數¹⁰⁾

(但 東醫壽世保元에 提示된 引用文獻을 根據로 하여)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		合計
	表	里	表	里	表	里	表	里	
1. 張仲景 傷寒論	22	27	10	4	2	1			66
2. 朱肱 活人書	4	5	1	1		1			12
3. 龔信 醫鑑	2	1	1	1		5		1	11
4. 李梴 醫學入門	2	6				1			9
5. 危亦林 得效方	1			2		2			5

6. 朱震亨 丹溪心法	1	1	1	1				1	5
7. 王好古 海藏書	1	1		2					4
8. 樓英 醫學綱目	1	2		1					4
9. 靈樞						2	1		3
10. 成無己 明理論	1	1							2
11. 李杲 東垣十書		1		1					2
12. 王叔和 脈經		1				1			2
13. 醫方類聚				2					2
14. 內經						1	1		2
15. 許叔微 本事方	1								1
16. 杜壬			1						1
17. 李子健 傷寒十勤論			1						1
18. 孫思邈 千金方				1					1
19. 難經						1			1
20. 張鷟 張鷟								1	1
21. 脈法						1			1
22. 古醫			1						1
合 計	36	46	16	16	2	16	2	3	137

〈圖表 2〉 東醫壽世保元에 提示된 引用文獻과 實際 引用文獻과의 比較¹⁰⁾

東醫壽世保元에 제시된 引用文獻	實際 引用 文獻
1. 張仲景 傷寒論	張仲景의 傷寒論과 金匱要略이 함께 引用되고 있다.
2. 朱肱 活人書	
3. 龔信 醫鑑	龔信의 古今醫鑑과 龔廷賢의 萬病回春이 함께 引用됨
4. 李挺 醫學入門	
5. 危亦林 得效方	
6. 朱震亨 丹溪心法	著자가 冊을 구하지 못하고 丹溪心法附餘로 대신함

7. 王好古 海藏書	海藏書란 冊은 없다.
8. 樓英 古學綱目	東醫壽世保元에는 著者が 明示되어 있지 않다
9. 靈樞	
10. 成無己 明理論	
11. 李杲 東垣十書	
12. 王叔和 脈經	
13. 醫方類聚	
14. 內經	
15. 許叔微 本事方	
16. 杜壬	宋代人이며 著書로 “醫准”一卷이 있으나 전해지지 않음
17. 李子健 傷寒十勤論	李子健은 宋代 사람으로 傷寒十勤을 著述하였으나 活人書에 包含되어 전해짐
18. 孫思邈 千金方	
19. 難經	
20. 張鷟 張鷟	張鷟은 確認할 수 없으며 東醫寶鑑에서는 丹溪心法에서 引用한 것으로 되어 있다.
21. 脈法	脈法이란 冊은 없고 東醫寶鑑 瘟疫門 脈法項에 言及된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脈經에서 確認된다.
22. 古醫	李濟馬 自身이 전해들은 얘기를 그대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圖表 3〉 동의수세보원에 제시된 引用文獻 比率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	合計
張仲景 傷寒論	49(35.8%)	14(10.2%)	3(2.2%)	0	66
宋元明 諸醫	33(24.1%)	18(13.1%)	15(10.9%)	5(3.7%)	71
合 計	82	32	18	5	137

〈圖表 4〉 東醫壽世保元에 引用된 處方 및 新定處方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	合計
張仲景 傷寒論 處方	23	10	4		37
唐宋元明 醫家 處方	19	9	9	(藥物12種)	37
李濟馬 新定 處方	24	17	24	2	67
合 計	66	36	37	2	141

결 론

참고문헌

東醫壽世保元の 醫源論을 中心으로 中國醫學의 發展過程과 漢醫學의 發達史를 研究檢討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醫道の 始興을 張仲景의 傷寒論으로 보고 있으나, 이것은 內經醫學의 原理의이고 演釋的인 面보다는 傷寒醫學의 具體的이고 歸納的인 方法으로 四象治療 醫學을 確立하였다.

2. 醫道の 中興을 朱肱이라 하였으니, 이는 內經醫學보다는 傷寒醫學中心의 醫學史觀을 더욱 確固히 한 것이다.

3. 醫道の 復興을 李梴, 龔信, 許浚이라 하였으니, 이는 李梴의 醫學入門이 朝鮮醫學史에 미친 影響에 대한 評價이고, 龔信은 四象體質의 病證藥理에 대한 認識은 없었으나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證의 病證藥理는 알고 있었으며, 許浚의 東醫寶鑑은 獨創的인 醫學思想은 없으나 많은 醫學的 知識을 東醫寶鑑을 통하여 얻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以上の 結果로 醫家の 勤勞功業을 張仲景, 朱肱, 許浚을 으뜸으로 하고, 李梴, 龔信을 그 다음으로 한 것이다.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信一文化社, pp.15-17, 1964

2. 洪性範 外: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을 中心으로 醫學史에 관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Vol. 4. No. 1, pp.159-169, 1992.

3. 洪淳用 外: 四象醫學原論, 서울 杏林出版, pp. 99-100, 1979

4.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p. 88, 95, 140, 145, 157-161, 193-194, 259, 1984.

5. 金泰熙 外: 宋代醫學의 學術的 特徵, 慶熙漢醫大論文集, Vol. 7, pp.411-434, 1984

6. 朴贊國 外: 仲景의 生涯와 後世傷寒家の 六經辨證에 관한 研究, 慶熙漢醫大論文集, Vol. 4, pp.193-202, 1981.

7. 尹暢烈 外: 金元時代 醫學의 學術的 特徵, 慶熙漢醫大論文集, Vol. 7, pp.435-454, 1984.

8. 宋一炳: 東醫寶鑑을 四象醫學 領域에서 살펴본 特徵과 끼친 影響, 서울, 四象醫學會誌, Vol. 4. No.1, pp.149-158, 1992.

9. 許津 外: 許浚의 生涯와 東醫寶鑑에 대한 研究, 慶熙漢醫大論文集, Vol. 9, pp.316-317, 1986.

10. 朴性植 外: 四象醫學의 學術的 淵源과 李濟馬 醫學思想에 대한 研究, 서울, 四象醫學會誌,

Vol. 5. No. 1, pp. 7-39, 1993.

11. 金 勛: 韓國 最近世 東洋醫學의 學術的 特徵에 관한 研究, 서울, 慶熙大學校論文集, Vol. 5, pp. 43-45, 1982.

12. 金鎮成 外: 李濟馬의 四象說에 대한 史的考察, 서울, 大韓漢醫學會誌, Vol. 8. No1. pp. 123-132, 1987.